

“사지전문발굴기구 필요하다”

전담기구 없어 졸속 행정-원형 훼손 심각 종교·문화적 식견 갖춘 전문가 양성해야

군위 인각사(2월중순), 제주 법화사(3월중순), 강화 선원사(4월초) 등 사지(寺址)복원사업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사지발굴을 전담하는 '사지전문발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사지발굴조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가 없이 행해지는 사지발굴이 근시안적인 졸속행정과 맞물려 오히려 원형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관련학자들은 “사지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발굴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종교적 신앙심과 불교문화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지발굴 전문가가 전담해야 한다는 것. 또 여러차례 중수·중창을 거친 사지에는 다양한 유적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지발굴은 특정지역을 단번에 파들어가는 고분발굴과 다르다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출토유물도 적다. 이로 인해 전공이 다른 연구자가 사지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세밀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

중앙승가대 김상영교수(불교사)는 “발굴은 보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지전문 발굴자가 없는 발굴기관은 사지발굴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지발굴은 대학 박물관에서 전담하고 있다. 발굴현장에서 상시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1~2명. 행정편의적인 조사기간 및 조사단의 급조 등으로 발굴이 오히려 유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청주 N사지처럼 철저한 문헌고증없이 조사에 착수, 사찰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례도 있다.

김교수는 “철저한 문헌조사에서

출발, 전문인력에 의한 발굴, 수행도량으로서의 옛 기능 회복에 이르기까지 사지전문발굴기구에 의한 일관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칫 복원만을 앞세우다 보면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역사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사지복원계획을 수립, 우선 사지 실태조사부터 철저히 넘어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삼국유사〉〈동국여지승람〉 등 각종 문헌과 사적비(寺跡碑)에 기록돼 있는 사지의 정확한 위치와 유물 등을 정리, 현장조사를 통해 대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재훈단장(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단)은 “사지발굴 전문인력의 동원없이 수천년에 걸쳐 내려오



◇문헌조사에서 발굴, 정비에 이르기까지 사지발굴은 종교·문화적 식견을 지닌 전문인력에 의한 일관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진은 4월부터 발굴이 재개되는 강화 선원사지.

는 유적을 실험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지나치게 복원을 목적으로 한 발굴 또한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원흥사의 경우 출토된 유물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보존과학센터를 설립한 이후, 사지발굴에서 보존처리, 전시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발전했다. 관련학자들은 사지복

윤기석 기자

“정보도난방지법 강화”

조계종 정보보존위 의견일치

조계종 정보보존위원회(위원장 원학스님)는 1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 관련부서(문화부)가 관리부실한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문화재보호법상에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72년 제정 이후 사문(死文)화 되다시피한 정보보존법을 개정해 정보도난에 대한 제재조치를 엄격히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정보보존위는 이와함께 전문적인 정보문화재의 보존·연구를 위한 불교중앙박물관 건립추진소위원회를

분명히 해야 이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사찰 스님들과 종무원들에게 정보보존에 대한 사명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사찰의 정보관리가 미흡할 경우 종단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보보존위 또는 문화부를 문화재 보호법상에 관리단체로 등록, 정보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제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디지털 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홍윤식교수(동국대)는 “지속적인 기초자료 조사 및 자료의 전산화, 종단차원의 지정, 정보보존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보에 관한 문화재관리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보관리의 책임자로서 총무원 문화부의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박물관다운 특색과 여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동국대박물관이 새로 건립되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황룡사전사건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석>

불교중앙박물관 추진위 올 구성

황룡사지 전시관건립 '반대'

해내 구성하기로 했다.

법제상 정보문화재는 소유자가 사할수지 개인으로 돼 있어 소유권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에 정보의 매매, 불사 등과 같은 현상변경시 종단의 의견서 첨부을 의무화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은 “정보보존법은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며 “정보도난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만 해도 4개 교구본사에까지 도난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단 한번도 없어 도난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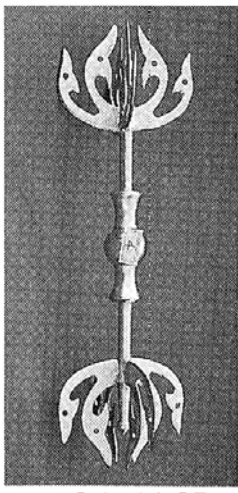
를 분명히 해야 이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사찰 스님들과 종무원들에게 정보보존에 대한 사명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사찰의 정보관리가 미흡할 경우 종단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보보존위 또는 문화부를 문화재 보호법상에 관리단체로 등록, 정보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제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디지털 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홍윤식교수(동국대)는 “지속적인 기초자료 조사 및 자료의 전산화, 종단차원의 지정, 정보보존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보에 관한 문화재관리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보관리의 책임자로서 총무원 문화부의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박물관다운 특색과 여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동국대박물관이 새로 건립되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황룡사전사건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석>

용성스님 유물·유품 전시회

3월4일부터 천안 독립기념관



◇용성스님의 유물인 금경저.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백용성스님의 유물 유품 전시회가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스님이 기증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1과, 용성스님이 남긴 사리 1과를 비롯 스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육으로 만든 삼보자인(인장), 염주, 요령, 촛대, 금강저 등과 화엄경 능엄경 등 스님이 번역한 육필 원고와 관련 사진 등 50여점이 전시된다.

한편 용성스님 유품전시회 개막식은 4일 오전 11시에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되며 당일 백용성조사유물실현위원회 주최로 점심공양이 배부어진다.



◇용성스님이 번역한 대방광물화엄경 번역본 육필원고.



◇용성스님이 생전에 쓰던 염주.



◇돈황 마고굴 제57굴의 보살상 모사그림(계성작).

백양사 고불미술관

3월1일~5월31일

돈황그림전

백양사 고불미술관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국 돈황 마고굴 모사 그림과 탁본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갖는다.

중국 돈황시에 있는 마고굴은 천불동이라고도 하며 지금까지 총 492개의 석굴이 발견됐다. 마고굴은 366년 낙준스님이 조성하기 시작해 북위 서위 수 당 송 원에 이르는 13세기까지 천여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이곳에 있는 벽화와 불상 조각들에서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양식의 특징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그림들은 중국 화가인 이정, 계강, 생택 등 3인이 직접 돈황마고굴에서 그린 작품으로 ‘제57굴 보살상’ ‘제199굴 관음보살상’ ‘제327굴 현화비천상’ 등 널리 알려진 벽화그림 14점과 석가 모니와불 탁본 등 총 21점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0685)92-7502

불심시심 <118>

너와 나는 하나의 이치

五十年來成底事 50년 동안 이룬 일이 무엇인가
(오십년래성저사)
破衣蔬食臥禪床 해진 옷 나물밥으로 선상에 누웠다
(파의소사와선상)
浮雲朝暮有飄覆 뜬 구름 아침 저녁 번복이 있지만
(부운조모유번복)
流水東西無古今 동서로 흐르는 물이야 고금이 있나
(유수동서무고금)
魚雁驚飛皆率性 고기 뛰고 새 날음도 모두 본성의 거느림
(어약연비개률성)
鶯歌燕語各全心 피꼬리 노래 제비 지저귀 각기 온전한 마음
(앵가연어각승심)
靜觀萬物象觀我 고요히 만물 살필 때 나 또한 살피면
(정관만물겸관아)
物我混然一理深 너와 나 혼연한 한 이치임을 깊이 알게 돼.
(물야혼연일리심)

관해대사의 시이다. ‘부질없이 읊다(漫吟)’라는 시이다. 이 시에서 대사가 찾았던 자연이나, 그에 대한 작사가 모두 사물 이치의 관찰이요, 법리의 추구며, 수선적 방편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50여년의 수선 생활에서 얻은 선리의 터득이다. 구름은 시간없이 깨었다 겹겹하다 하는 것이 본성이다. 그러면서도 항상 구름일 수밖에 없고, 물의 본성에는 원래 낮은 곳이면 흐르는 것이다. 어찌 흘러간 물은 오늘의 물이라 할 수 없지만, 물 자체로서는 어제 오늘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 승려의 구성은 완전한 시공의 배치를 잘 소화있게 하였다. 위에 떠있는 구름으로 공간적 무상을, 아래의 물에서 시간의 무상성을 나타내었다. 물고기는 뛰어 오르고 새는 하늘로 날게 되어 있다. 이것이 모두 본성의 자연이다. 이 연비어약의 어구는 유가에서 사물의 이치를 살피는 기본자세로 예시하는 어구이다. 각기 본성의 진실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피꼬리의 노래나 제비의 지저귀나 사람의 언어가 그 본성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살림이 바로 나와 남, 사람과 자연이 한 이치임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대사는 자연의 서경에도 항상 사물의 이치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넘치고 있다. 선가의 진리적 표현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더라도, 깨달은 방편적 원용이었다 한다면 궁극적인 깨달음에는 차이가 있을 리 없다. 선의 이치를 모든 사물의 일상사로 이해하려는 선가의 자세라 한다면 어떨까.

이중찬 <동국대 교수>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인각사 전경.

승가대, 인각사 사역범위 조사

삼국유사의 산실 군위 인각사(주지 대원)에 대한 3차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소장 홍선)는 인각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8일부터 ‘군위 인각사 사역확인을 위한 시굴조사’에 착수, 3월 30일까지 약 40일간 발굴작업을 벌인다.

이번 발굴조사는 92, 93년 경북도의 예산지원으로 추진된 1, 2차 발굴조사에 이은 연속사업으로 인각사 외곽지에 대한 유구확인과 사역의 범위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다.

인각사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결과를 기초로 인각사 정비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책방 여시아문 2월 특선 - 경전의 지혜로 겨울나기

책방 여시아문 특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 팩스: (02)737-0696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올 2월, 많은 불자들이 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경전들만을 간추려 특판전을 열고자 합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법구경 등 불자들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읽어 보아야 할 경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서는 날쌔만큼이나 꿈꿨던 얼어 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봄의 지혜를 빌어 이겨 가지 않겠습니까.

문의 전화: (02)737-0695, 732-1521



- 금강경 강의 무비 / 불광 / 5300
- 금강경 대강좌 청담 / 보성문화사 / 2000
- 금강경 대강좌 이세영 / 여시아문 / 8000
- 금강경 오가해 무비 / 불광 / 15000
- 금강경 이야기 범문 / 정토 / 상 9530 하 6230
- 금강반야바라밀경 원문 / 보림각 / 5000
-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안 / 불서보급사 / 4500
- 능엄경 불전간행회, 김두재 / 민족사 / 9500
- 능엄경 강화 1, 2, 3 동국역경원 / 각 15000원
- 능엄경 주해 운허 / 동국역경원 / 10000
- 대승입능가경 김계근 / 명문당 / 7000
- 묘법연화경 고산 / 반야당 / 15000
- 반야심경 범성 / 큰수해 / 8000
- 반야심경 송린 / 상아 / 6000
- 반야심경 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 4000
- 반야심경 청담 / 보성문화사 / 9000
- 반야심경 강의 한정섭 / 불교대학교 교재(1번) / 6000
- 반야심경 이야기 범문 / 정토 / 7000

- 법구경 김달남 / 현암사 / 8000
- 법구경 불전간행회, 석지현 / 민족사 / 6500
-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 / 운주사 / 7000
- 법화경 운허 / 동국역경원 / 7000
- 법화경 이원섭 / 삼중당 / 6000
- 보현행원품 한정섭 / 불교통신교육원 / 6000
-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 불광 / 4000
- 보현행원품 강의 무비 / 민족사 / 6500
- 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대한불교조계종 / 12000
- 아함경 1, 2 불전간행회, 문연 / 민족사 / 각 7500, 7000
- 여래시지의 요문(대승입능가경) 박건주 / 능가산방 / 11000
- 원각경 감산대사, 오진탁 / 세계사 / 15000
- 원각경 관심석 범성 / 큰수해 / 9000
- 원각경 주해 원운 / 동국역경원 / 3000
- 유마경 불전간행회, 박용길 / 민족사 / 6500
- 유마경 안진로 / 범문사 / 25000
- 유마경 장운봉 / 시공사 / 12000

- 유마힐소설경 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 8000
- 육조단경 광덕(역) / 불광 / 12000
- 육조단경 나카가와 다카, 양기봉(역) / 길명사 / 7000
- 육조단경 심재일 / 보림각 / 15000
- 육조법보단경 해의 범성 / 큰수해 / 12000
- 천수경 무비 / 불일 / 4500
- 천수경 강해 범성 / 큰수해 / 6000
- 천수경 이야기 김효성 / 민족사 / 4500
- 초발심자경문 심재일 / 보성문화사 / 7000
- 초발심자경문 단허 / 불서보급사 / 3500
- 치문경훈 이일영 / 보림각 / 15000
- 치문경훈 이일영 / 수덕사승가대학 / 15000
- 한글 세대를 위한 법화경 상, 하 감산대사, 오진탁 / 세계사 / 각 15000
- 한글 세대를 위한 법구경 최동호, 김달남 / 세계사 / 12000
- 한글 아함경 고익진 / 동국대학교 출판부 / 12000
- 화엄경 범성 / 동국역경원 / 7000

- 화엄경 불전간행회, 김지현 / 민족사 / 12000
- 화엄경 강의 무비 / 불광 / 9000
- 성철 스님 범어집
- 백일 범문 상·하 상 6500원 하 5500원
- 선문정로 평석 6000원
- 돈오입도 요문론 강설 5000원
- 선심명 증도가 강설 6000원
- 원한된 자유 6000원
- 지기를 바로 봅시다 6000원
- 돈황본 육조단경 6000원
- 선문정로 4000원
- 문지풍광 7000원
- 한국불교의 법맥 5500원
- 성철 스님 범어집 1집(11권 ₩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비디오프스님, 성철 큰스님, ₩10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